

# Field Voice

## 민간 발전사업자 석탄화력서 승부 내싸



동부건설과 STX에너지가 국내 최초로 석탄화력발전 분야에 진출했다. 하지만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온실가스 정책과 계통한계가격(SMP) 보정 계수 폐지 등으로 수익성조차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건설과 STX에너지는 각각 충남 당진과 강원도 동해에 1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키로 했다. STX에너지의 경우, 지역주민의 협조로 건설 자체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나, 동부건설의 경우 주민 설명회가 무산돼 건설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간 업계 최초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만큼 이들 사업자의 수익성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LNG복합화력을 운영 중인 한 민간사업자는 “석탄가격이 LNG보다 20% 정도 싸기 때문에 연료 구입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발전소 규모가 크고 석탄화력은 기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가동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분명히 수익 창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사업자는 “현재는 연료 수입 측면으로만 수익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 “지난해부터 ‘녹색성장 정책’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각종 온실가스 정책이 대두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공기업은 물론 민간 사업자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 발전사업자가 기존 LNG발전소 대신 석탄화력발전 분야에 뛰어들자 전력거래소는 계통한계가격(SMP)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과 공기업 모두 일부 수익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SMP 보정계수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과 공기업의 발전사업 수익을 일부 제안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원자력은 물론 화력과 LNG, 중유발전 등에 베스팅계약 정도의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